

빛고을 전사들 “내년엔 필승”

광주 FC 동계훈련 돌입 … 이한샘 등 신인 7명 합류

최만희 감독 “시민 응원에 보답”

빛고을 전사들의 두 번째 겨울이 시작됐다.

3주간의 휴식기를 보낸 광주 FC 선수단이 21일 광주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동계훈련을 시작했다. 지난 9일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광주 유니폼을 입은 수비수 이한샘 등

신인 7명이 합류했고, 주양파울로도 귀국을

미루고 훈련에 함께 했다.

광주에 소집된 선수단은 내달 17일까지 3주간 기초 체력훈련과 전술훈련을 실시한다. 1월 4일부터 21일까지는 목표로 이동해

본격적으로 호흡을 맞추게 된다.

해외전지훈련도 치러진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국 쿤밍과 상하이로 전지훈련 무대로 삼은 광주는 2월 18일까지 새시즌을 위한 강행을 예정이다.

최만희 감독은 “시즌이 시작되면서 잘 준비하자고 선수들에게 당부를 했다. 당분간은 전술을 이해시키고 몸 만드는 단계로 훈련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신인 영입을 끝내고 동계 훈련도 시작됐지만 내년 시즌을 앞두고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다.

남기일 플레이 코치가 선수생활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광주 유니폼을 벗어 됐고, 시민 구단의 자금력의 한계 때문에 용병 영입 작업도 만만치 않다. 매일 훈련 장소를 물색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21일 첫 훈련도 순탄치 않았다. ‘잔디보호’ 때문에 관리사무소와 트랙내 러닝을 놓고 마찰을 빚기도 했던 선수단은 오후에는 첨단지구에 있는 금강구장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금강구장은 금강기업에서 보유한 사내 운동장이다.

어려움도 있지만 내년 시즌의 기대감은 크다. 최 감독은 “부담도 되지만 내년 시즌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폭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심리적으로 잘 둉쳐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경기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했다. 훈련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정해서 한데 둉쳐 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언급했다.

무릎 수술을 받은 이용의 복귀 시점과 골키퍼 영입은 광주 수비력을 만드는데 관건이 될 전망이다. 광주는 조상준의 군입대에 따른 골키퍼 공백을 메우기 위한 FA 선수 영입을 준비하고 있다. 공격력 강화를 위해 주양파울로 외에 1~2명의 용병을 추가로 불러들일 예정이다.

최 감독은 “선수들이 꾀를 부리지 않고 열심히 한다. 내년 시즌에는 주양파울로의 활용도 높이고, 승강제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이다”며 “어려움은 있지만 야구 도시에서 프로축구의 가능성을 봤다. 좋은 경기로 시민들의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월드컵대표팀에 다녀온 이승기는 대해 “데뷔전에서는 잘했지만 레바논 전에서는 좋은 경기를 하지 못했다. 아직은 주전이 아니다”고 냉정한 평가를 한 최 감독은 “하지만 차운한 성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것이다. 이번 경험이 좋은 약이 됐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선수단이 21일 광주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합동훈련을 갖고 2012시즌을 위한 첫걸음을 떴다.

“2년차 징크스 NO … 신인의 마음으로 뛰겠다”

A매치 데뷔전 치르고 돌아온 이승기

“냉정하지 못했지만 많은 경험을 했다. 2년차 징크스 없이 신인의 마음으로 다시 뛰겠다.”

A매치 데뷔전을 치르고 돌아온 광주 FC의 미드필더 이승기는 2012시즌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지난 11일 월드컵 3차예선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에 후반 교체 출전하며 A매치 무대에 섰던 이승기는 15일 레바논과의 경기에서는 선발 출전하며 풀타임을 소화했었다.

이승기는 “내심 나에 대한 좋은 기사들이 나와서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정말 경기를 뛰게 될 줄은 몰랐다. 긴장한 상태였는데 티 안내려고 많이 뛰어다녔다. 찬스를 살리지 못한 점, 첫 골이 내 발에서 시작됐지만 득점 포인트를 올리지 못한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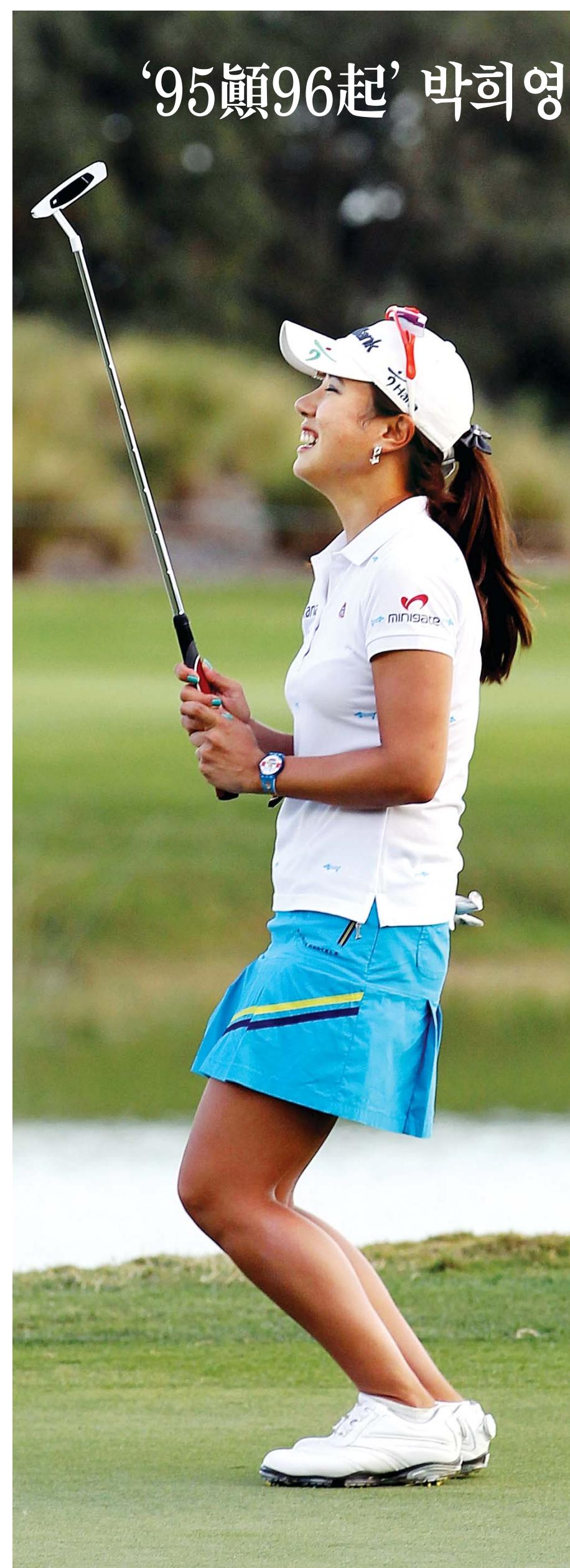


다. 코칭 스태프와도 의사소통을 하지 못 할 정도였다. 냉정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팀 휴식기간 대표팀에 다녀오고 가족 모임에 참석하거나 휴식을 취하지 못했던 이승기는 팀 동계훈련이 시작된 21일 컨디션이 좋지 않아 훈련은 점상적으로 소화하지 못했다. 하지만 큰 무대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온 만큼 2012시즌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승기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찾아오기 힘든 기회라고 판단해서 기회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심적으로나 몸 준비를 잘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경기를 뛰었는데 너무 쉽게 실점을 해서 내 품赖以를 잘하겠다. 신인이라는 마음 가짐으로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 순간을 영원히” 박희영 21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그랜드 사이프레스 골프장에서 열린 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 CME 그룹 타이틀홀더스 4라운드 마지막 홀을 파로 마무리하며 우승을 확정지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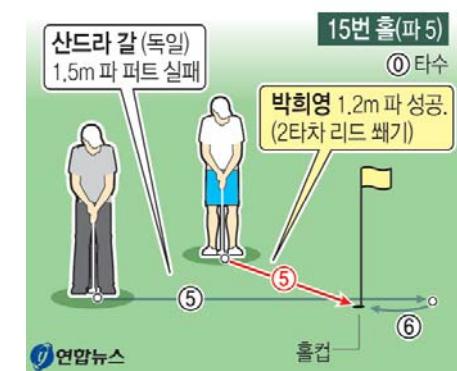
꿈을 이루다

LPGA 타이틀홀더스

최종 9언더파로 우승

박희영 15번홀 그린 상황도

美그랜드 사이프레스 골프장(파72-6,5180야드)



박희영(24·하나금융그룹)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인 CME그룹 타이틀홀더스(총상금 150만달러)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박희영은 20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그랜드 사이프레스 골프장(파72-6,518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끊어 2타를 줄였다.

최종합계 9언더파 279타가 된 박희영은 7언더파 281타를 친 공동 2위 샌드라 칼(독일), 폴라 크리머(미국)를 제치고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2008년 LPGA 투어에 진출한 박희영은 미국 무대에서의 첫 우승으로 2011시즌 피날레를 장식했다.

우승 상금은 50만 달러로 이번 시즌 내내 벌었던 35만1781달러보다 많다.

3라운드까지 10언더파로 공동 선두를 달린 박희영은 4라운드 내내 치열한 우승 경쟁을 벌였다.

박희영은 “많은 사람이 그동안 왜 우승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이제 나도 우승할 수 있다고 답하게 됐다. 꿈이 이뤄졌다”며 기뻐했다.

상금 랭킹이 32위에서 12위로 뛰어오른 박희영은 “원 위치가 어려워 그린 위 플레이가 쉽지 않았다”며 “마지막 3~4개 홀이 남았을 때 부담이 커지만 평소와 다를 없이 플레이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은 올 시즌 LPGA 대회 가운데 7월 US 여자오픈(유소연·21·한화)과 10월의 사임 다비 말레이시아(최나연·24·SK텔레콤)를 포함해 3승을 수확했다.

최나연이 LPGA 대회에서 한국(계)선수 통산 100승의 위업을 쟁았고, 200승으로 가는 첫 걸음은 박희영이 시작했다.

이번 대회에서 최나연은 6언더파 282타를 쳐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과 함께 공동 4위에 올랐다.

세계 랭킹 1위 청아니(대만)는 2언더파 286타로 미셸위(22·나이키골프), 크리스티 커(미국)와 함께 공동 6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일

- 루마썬팅, 3M 썬팅, 모비스 썬팅
- 맥과이어스 클릭, 코팅, 실내 클리너, 하부 언더 코팅
- 만도 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 네이비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DMB 샤크 안테나

- 자동차 경비 일체, 면데리, 오일 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수입 타이어

- 천연 가죽 시트, 인조 가죽 시트, 수입 차 가죽 시트 제조

- 바디 방음, 천장 방음, HID 헤드, LED 램프

- 이자카 도난 경보기, 후방 감지센서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 최대 500평 매장

■ 주차장 700명 주차 걱정 끝

루마썬팅 | 3M 썬팅 | 모비스 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 ·
자외선 차단 끝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 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 확보 (안전성)

천연 가죽 시트



타이어 | 휠 | 경정비



광택 | 유리막 코팅 | 맥과이어스 | 3M

Meguiar's since 1901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 | | | | |
|------------|---------|-------------|---------|
| ▶ 소형 25만 원 | ⇒ 13만 원 | ▶ RV 35만 원 | ⇒ 23만 원 |
| ▶ 중형 30만 원 | ⇒ 18만 원 | ▶ 수입차 20만 원 | ⇒ 28만 원 |
| ▶ 대형 35만 원 | ⇒ 23만 원 | | |